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작품개발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rama@ntck.or.kr



창작공감 ∞ 희곡
∞ 극 ∞ 감 ∞ 연

입체 ∞ 낭독 ∞ 공연
∞ 극 ∞ 연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2024.3.15. 금 ~ 3.16. 토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bb

99

2024.

3.15.금 - 3.16.토

금 19:30

토 15:00 / 19:00

만드는 사람들

작 이용훈 연출 윤성호

출연 권정훈

스태프

드라마투르기 이경미 무대 박상봉 조명 김성구

음향 목소 영상 김성하 무대감독 이덕수

윤호는 경기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철거 노동자다.

출근은 평소와 다름없다.

현장은 언제나 낡은 구옥이거나 빈 공터다.

구옥을 해체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을 한다.

구옥을 해체하는 중에 걸려온 전화.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윤호는 병원이라는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가슴이 내려앉는다.

그리고 윤호 옆에는 베트남에서 건너온 '쯔엉'과 반장이 있다.

작가의 글

나는 한 죽음을 지켜본 적 있다.

나는 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나는 한 죽음이 은행나무 열매의 아린 기억의 냄새를 풍긴다고 느꼈다.

나는 한 죽음이 잊히는 게 못내 아쉽다.

나는 한 죽음을 기억하고 싶어 희곡을 쓴다, 썼다.

나는, 나는 그 죽음에 대해 많을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 죽음을 생각한다. 한 죽음에 대해...

나는 한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작가 이용훈

2018년 [내일을 여는 작가]로 등단, 작가회의

2022년 시집[근무일지], 창작과 비평사

현재 건설현장 잡부로 때로는 물류창고 상하차 일을 하며 희곡과 시를 쓰고 있다.

작가의 글

지방 건설현장 어딘가(목포로 기억남)에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주말 휴일 근로자 숙소를 나와 시내를 돌아다니다 찾은 중고서점에서
[베르나르 알바의 집]을 구입하면서 희곡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구입할 생각으로, 시집이 진열된 서가로 갔고, 나는 아주 작은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책을 집기까지, 하지만 지금도, 희곡을 몰랐고, 모릅니다.

나는 아무래도 제목 중에 '알바'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전에 다른 곳(전혀 다른 지역에서)에서
구입한 시집의 제목은 김정환 시인의 [거푸집 연주]였으니까요.
희곡의 표지를 넘기자 어떤 문구가 있어서 더욱 그 책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시인은 세 막으로 구성된 이 희곡을 사진 다큐멘터리 자료처럼
사실적으로 만들려 했다는 뜻을 밝힌다.'

이 문구를 작가가 쓴 것인지, 번역가가 쓴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책을 집어 들고 서점 주인에게 다가가 책에 적혀있던 문구를 보여 주었습니다.

사진 다큐멘터리가 무엇인가요? 내가 그에게 묻자, 그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책들이 쌓여있는 복잡한 서가 어딘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뒤 책 한 권을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흑백 사진책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아주 작은 두 권의 책을 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희곡 쓰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용훈 작가의 작업 현장 사진 (작가 제공)

오함마 백씨행장 완판본

작
이용훈



이용훈 작가의 작업 현장 사진 (작가 제공)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은 철거 노동자 박윤호의 독백으로 진행됩니다.
며칠간에 걸쳐 진행되는 비좁은 골목가의 집을 철거하는 노동의 과정이 여실히 드러나며,
현장 안에서 숨 쉬며 살아가는 일용직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위태로운지 알기에
같이 오함마를 두드리는 동료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배려합니다.
그 중심에 백씨, 백두영이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고, 그가 남긴 유일한 수첩은 인력사무소를 전화번호로 가득합니다.
희곡은 주인공은 물론 반장, 외국인 노동자 쓰영까지 희곡에 등장하는 모두가 백씨,
백두영이라 이야기합니다.
실제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독백으로 진행되는 희곡의 행간에는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극의 큰 무기 중 하나인 재현을 넘어서서
새로운 연극성이라는 그릇을 요구합니다.
근래 노동자들의 산재와 죽음의 소식이 유독 잦았습니다.
노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목소리가 필요한 때,
노동 최일선의 목소리를 담은 '독백'을 만나 반갑습니다.
입체낭독극을 통해 이 만남에 어떻게 관객을 초대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운영위원
이경미, 윤성호

창작공감 : 희곡

경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소통 창구로, 연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희곡을 찾습니다.

국립극단은 동시대 화두를 탐구하는 희곡을 찾기 위한 온라인 상시투고 제도 [창작공감: 희곡]을 운영합니다.

접수된 모든 희곡은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읽고 검토합니다.

추천작에 한해 낭독회를 진행하고, 작가, 배우, 관계자 및 관객과 작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작가가 희곡의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창작희곡과 작가들을 만나는 열린 창구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희곡 발전가능성을 세심히 살핀 후

최종선정작을 대상으로 입체낭독공연을 제작합니다.

※ 2024년 2월부터 기존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잠정 중단합니다.

운영위원 이경미 윤성호

무대기술 총괄 정광호

제작감독 이승수

조명감독 류선영

음향감독 장도희

홍보·마케팅 총괄 박보영

홍보 이정현 박선영

마케팅 노소연

온라인 마케팅 조영채 장인영

후원 이현아

티켓 임윤희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김지수 고계령 김연정

한세린 노정균 박은혜

신정훈 양선형 김지윤

송광호

홍보몰디자이 스튜디오 붐빔(대표 김은총 박현주)

옥외광고 프린팅랩(대표 김수하)

기록 사진 만나 사진작업실(대표 김신중)

기록 영상 팀채도(대표 김채린)

작품개발 총괄 정용성

작품개발 PD 이슬예

작품개발 AD 이혜진

주최 (재)국립극단

주관 (주)플티

단장 겸 예술감독 직무대행 오현실